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② ; 2002년도 공공도서관협의회 총회

공공도서관협의회는 3월 15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배포된 자료집의 내용 중 먼저 'IFLA/UNESCO 공공도서관 가이드라인의 발전과 내용'에 대해 상명대학교 장혜란 교수가 쓴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에 우리말로도 번역된 가이드라인은 1949년 UNESCO 공공도서관 선언 발표를 시작으로 1972년과 1994년에 공공도서관 선언 개정, 2000년 8월 UNESCO의 개정 가이드라인의 UNESCO 공식 언어로의 번역 자금 지원 결정의 경과를 거쳐, 2001년 7월 15일 Public Libraries Service : IFLA/UNESCO Guidelines for Development로 출간되었다. 2002년 3월 현재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한국어 등 6개 국어로 번역되었고, 또한 알마이어어, 카탈로니아어, 중국어, 체코어, 독일어, 그리스어, 이태리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등 10개국 언어로 번역작업이 진행 중이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목적, 법적 재정적 토대, 이용자 요구의 만족, 장서구축, 인적자원, 경영과 마케팅,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은 주제에 대하여 대체로 간단 명료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각 부문에 대하여 기준과 지침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노르딕세미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공공도서관 실무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기준은 일종의 강제성을 나타내는 '~해야한다'로 표현되어 있으며, 고딕체로 구별하여 인쇄되어 있다. 본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제는 제3장 '이용자 요구의 충족'인데, 전체의 약 30%에 해당한다. 개정 가이드라인의 주안점은 정보사회의 역동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기반 서비스를

창출하며, 모든 국가를 위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장 교수는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세계 안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비교에 대해서는 장서부문과, 직원부문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이 책에 나와있는 44개국 79가지 사례 중에서 우리나라의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는 무슨 서비스를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를 공표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모든 서비스는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는 경영과정의 하나로 기획단계부터 염두에 두어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하고, 평가결과는 서비스에 반영되어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서비스의 개발과 평가와 홍보는 공공도서관 관계자들의 몫이며, 장차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의 결실을 맺길 바라며, 또한 그 결과가 국내·외적으로 전달되어 공공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덧붙였다.

총회 자료집에서는 그 동안 특별연구위원들이 수행한 3건의 과제도 수록되어 있었는데, 먼저 제1분과는 "공공도서관의 자료 상호대차제도 제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상호대차 서비스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분담하는 협력서비스 시스템으로 이용자가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거리 상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필요하다. 상호대차를 위한 환경정립은 통합목록의 구성, 통합목록 구성을 위한 제반조건으로는 분담목록 시스템 조성, 한국목록규칙 4판의 준비 및 표준화(완전판), 표준MARC형식 개발과 기존 KORMARC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전거데이터 개발구축, 도서관 목록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현장담당사서의 재교육, 각종 주제별 시소러스 개발 구축,

소급 자료 변환을 위한 협동프로그램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밖에도 자료수집과 관리면에서는 자료공동선택·공동구입·장서구성·분담수집·도서관 자료의 교환·공동보관·공동제본 문제, 자료조직 부문에는 책 자체 또는 온라인목록의 통합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의 참여·공동정리·인쇄카드 이용 등의 문제 참고서비스 결과와 공동이용 등도 검토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또한 상호대차 규정제정도 필요하며, 도서관 협력체제의 구성도 필요하다. 더불어 관내의 전문인력 확보, 예산확보 같은 환경 정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2분과는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사례”에 대해 연구하였다. 디지털자료실 구축·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말하였는데, 먼저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으로, 1) 국고보조가 지나치게 경색되어 있다는 점, 2) 국고 지원의 필수조건인 콘텐츠 구입비가 근시안적이라는 것, 3) 국고지원을 입찰하여 현물로 보조하는 관계로 실제 지원액은 당초 책정액보다 현저하게 낮아졌음에도 그 차액에 대한 보전이 없다는 것, 4) 국고 보조를 현물로만 지원하여 각 기관별 상황에 맞는 물품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여 효율적인 장비 확보에 애로가 있다는 점, 5) 정해진 국고 보조액을 맞추려다 보니 일부 서비스의 금액은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논란이 야기된다는 것, 6) 국고지원액에 KOLIS-NET 구축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가시적인 활용 사실이 없다는 것, 7) 국고분 소프트웨어의 장단점이 완벽히 검토되지 않아 비슷한 소프트웨어를 중복 구입하여야 할 경우도 있다는 점, 8) 지방비 부담 기준의 제시에 있어서도 각 도서관별 상황과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채 일괄 지정하여 선

택 결정에 애로를 겪게 된다는 점 등이다.

사업추진 및 실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1) 선례 및 표준 시방서 등이 없어 사업 대상도서관으로 선정된 뒤 한 동안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체의 난립과 방문, 2) 예산 집행부서와 실제 사용 부서가 상이하여 정확한 구매 내역이나 시방사항의 판단이 어려웠으며 라인의 다중화로 사업 진척이 더딘 점, 3) 전국적으로 많은 도서관에서 비슷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일부 품목의 경우 납기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점, 4) 국고지원 내역에서 나타나듯이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자된 멀티미디어 서버의 활용 방안 모색 및 CD탑재 프로그램 S/W의 기능이 미비하다는 점, 5) 많은 수의 컴퓨터를 관리하기 위한 이미지화와 백업도구의 필수성, 충분하지 않은 실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버실의 크기를 최소화하였으나 밀폐된 공간이라 온도상승이 큰 문제점, 6) 액세스 플로어 판넬로 바닥을 할 경우 네트워크 및 전기박스가 부착된 판넬 사용은 컴퓨터 책상 배치에 어려움을 야기하므로, 가급적 지양하고 책상을 제자리에 배치한 후에 필요한 곳에 드릴 천공으로 처리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외관 처리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 7) 도서관 규모나 이용률에 비해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인 서버 사양이나 수량을 줄이거나 혹은 국고지원에 조금만 더 융통성을 발휘하여 전체 공공도서관 모두에게 디지털자료실 구축이 이루어지다면 국고지원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제3분과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지역기록물 수집 운영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정보, 문화 중심센터로서 지역에 관련된 총체적 자료 수집의 구심체로 활용되어지고 관계기관과 지역주민들이 연계된 지역기록물 수집

으로 새로운 세기의 기록유산을 후세대에 계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지역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문화요소, 문화적 내용 등을 조사하고 정리, 조직하여 이를 보존하고 전달하여야 하며 문화의 변화하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지역기록물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자료를 보존하는 목적이 아니라 보존되어진 기록자료들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되어 지느냐에 따라 국가와 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세계문명을 주도하는 새로운 사상과 학술이론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지역기록물의 수집 대상자료는 지역에서 간행된 모든 인쇄자료, 매스미디어에서 간행되는 지역기록물, 구술자료의 개발을 통한 자료, 영상자료의 개발로 인한 비도서 자료, 지역의 학술, 문화 단체와의 연계성 있는 연구자료 등이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기록물의 수집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기증활동을 하기 위한 여건들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 이외에도 무엇보다 공공도서관이 자료수집에 무관심하고 지역기록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할 뿐 아니라 많은 공공기관들이 공공도서관에서 그들의 발간자료들이 수집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1) 자료를 실제 발간하는 공공기관에서 공공도서관으로 자료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없고, 2) 발간되는 자료의 부수도 한정되어 있으며, 3) 공공도서관이 홍보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기증활동을 벌이지 못해 타 기관으로 하여금 어느 도서관에서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료를 적시에 수집하기 위해서는 지역관련 자

료의 발간정보를 재빠르게 파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1) 공공도서관에서 기증기록물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보존 관리방법으로 기증을 유도하여야 한다. 2) 공공도서관이 소장하지 못한 지역기록물들은 자료의 출처원을 제공하여 기록물소장 종합목록을 작성하고 가능한 기록물의 공유에 따른 공공기관간 협력망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3) 공공기록물 데이터베이스구축으로 지역정보 제공에 있어 지역공공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기록물수집과 함께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한 기관간 정보공유 협력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4) 전담사서의 배치로 지역기록물의 수집, 정리는 물론 지역에 대한 홍보와 이용자교육도 함께 담당하도록 하여 공공도서관이 기록물 보존기구로서의 역할을 부상시켜야 할 것이다. 5) 지역홍보를 위한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기록물 전시회 등 문화행사를 통하여 지역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지역공공도서관이 평생교육기관으로 부상될 수 있을 것이다. 6) 지역공공도서관에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고서적의 해제나 초록 그리고 소장기록물의 목록, 지역기록물 색인작성을 하여 지역정보중심센터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근거로 지역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기록물의 수집과 이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국내 기록관리 표준화사업과 기록물의 디지털화의 연구 및 개발수행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적이며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